



아베가 감쌌던 부인 여행 사진 공개...연일 '악재 투성'

기사입력 2020-04-26 20:58 최종수정 2020-04-26 22:14



日 교수 분석 "실제 감염자 10배 이상"

<앵커>

일본은 오늘(26일) 1만 4천 명을 넘겼습니다. 아직 감염자가 다 드러나지 않아 실제로는 10배 더 많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부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단체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전문가 회의에서 수치 분석을 담당하는 홋카이도대 니시우라 교수가 "일본의 현재 확진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 감염자 수는 10배 이상"이라고 예상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습니다.

니시우라 교수는 또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는 감염자 수가 하루에 검사 가능한 숫자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오늘 72명이 추가 확진돼 13일 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리로 떨어진 도쿄에서는 점차 외출 자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주간지가 지난달 15일 남부 오이타 현의 한 신사를 방문한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의회에서 아키에 여사의 여행이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3밀' 회피 원칙을 어기진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아베/일본 총리 (지난 17일) : 제가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한 건 3월 28일이었고, (아내는) 신사 참배 외에 관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키에 여사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은 아베 총리 부인

긴급 사태 선언 3주째를 눈앞에 두고 국민들의 피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에 비상이 걸린 아베 정권에게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오노영)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모두 함께 지켜요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유증상자 예방수칙	유행지역 예방수칙
<p>등교·출근하지 말고 외출 자제</p> <p>증상이 심해지면,</p> <p>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문의</p> <p>② 선별진료소 방문</p>	<p>· 외출 및 타 지역 방문 자제</p> <p>· 격리자, 방역당국 지시 따르기</p>

SBS NEWS

유성재 기자(venia@sbs.co.kr)

- ▶ [구독 이벤트] SBS뉴스 구독하고 선물 받아보세요!
- ▶ 코로나19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5&aid=0000810603>
